

여성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연구

서란숙*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미용경영전공*

A study on the attitude of make-up according to Women's body image & self-image

Ran-Sug Seo*

Dept. of Venture Beauty Management,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요 약 외모도 능력의 일부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게 되어 사회적 이미지를 유지해 가는 수단이 되어감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에 여성들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를 알아보고자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미만 여성 218명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중관심도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체중관심도의 경우 세련된 이미지와 순수한 이미지에 따라 화장태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활동 이미지에서는 체중관심도에 따라 화장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둘째, 외모관심도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 활동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화장태도에 더 적극적이었다. 즉,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이미지가 높을수록 화장태도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신체매력도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신체매력도가 높을수록,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주제어 : 신체이미지, 자아이미지, 체중관심도, 외모관심도, 화장태도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make-up culture of women by disclosing attitudes of make-up as to whether there will be differences or not according to personal weight interests & self-image. The study was performed with 218 consecutive women between the ages of 30 and 50 over 2 months from April 10th, 2012 till May 30th, 2012.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make-up attitudes according to concerns of weight interests and self-image, there is no difference of make-up attitude by sophisticated image and pure image in case of weight concern. Bu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make-up attitudes by concerns of weight interests in activities image. Second, highly populated group of sophisticated image, pure image, and active image has more activities of make-up attitudes. The higher concerns of appearance and the higher self-image, there was more positive attitude of make-up. Third, highly populated group of pure image and active image has more positive attitude of make-up in case of higher physical attractiveness.

Key Words : Body Image, Self-image, Weight interest, appearance interest, Make-up attitude

* 이 논문은 2013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2012RIA1A/2041477)

Received 14 November 2013, Revised 14 December 2013

Accepted 20 Jan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Ran-Sug Seo(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Email: srs1001@daum.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긍정적인 외모는 대인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며, 외모도 능력의 일부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게 되어 사회적 이미지를 유지해 가는 수단이 되어감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현대 여성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 개인적인 신분상징을 위해 체중조절, 외모관리 그리고 화장 등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자신의 외모를 타인에게 호감을 주도록 변화시키고 관리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신체적인 변화와 자신과 환경에 대한 불만 및 새로운 변화의 시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Kim and Kahng(1992)은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가 향상되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어진다고 하였다[1]. 이는 중년 여성들의 신체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그들의 신체적 외모가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신체적 아름다움의 표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뿐 아니라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 한다고 생각하는 외모지상주의가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반면, 중년기 여성의 신체는 젊음과 매력 성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2].

Cash(1990)는 신체적 기준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 때 사회 문화적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신체적 매력에 다르게 작용하고, 특히 여성의 신체적 매력 중 날씬함이 중요한 요소로 지목된다고 하였다[3].

Kaiser(1990)는 외모와 관련된 신체적 속성의 대부분이 유전으로 결정되지만, 신체적 매력은 의복, 화장품, 성형수술, 다이어트 및 운동 등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으며 신체적 매력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4]. 이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개인의 신체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기화되어 작용하면서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외모과시에 대한 내면적인 욕구는 외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쳐 불만스러운 신체부위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5].

Kim(1999)의 연구에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미의 조건이 달라지고 사람들은 긍정적이 외모조건을 만들기

위해 화장과 같은 인위적인 외모관리를 통해 신체를 아름답고 호의적인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사회생활에서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하였다[6].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들의 미를 추구하고 자신을 평가하는데도 신체이미지와 자아이미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매력적인 신체와 화장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더 나아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경향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에 여성들의 신체와 자아, 외모관리에 따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Berscheid and Walster(1974)와 잡지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와 신체 모양 이상과 인식에 관한 Cusumano and Thompson (1997)의 연구가 있다[7,8]. 이외에도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중년여성의 신체관련 스트레스와 외모관심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 존중감, 신체 매력 지각이 외모관리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5,9,10]. 또한 Kim(2004)은 여자대학생의 자기에 적 성격성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외모관리 관여도를 살펴보고,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고[11], Lim(2008)는 신체만족도에 따른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12]. Schlenker(1980)는 자아 개념, 사회적 정체성과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인간의 자아개념이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13].

또한 여성들이 화장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Seo(2012)는 자기에성향, 신체의식과 외모관리 행동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고[14], Chung(2007)은 여대생의 화장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으며[15], Lee(2002)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해 분석하였다[16].

이러한 연구들은 Kim(2012)의 자아 이미지에 대한 미미 확장과 양성평등화로 증가하는 남성 메이크업의 트렌

드 및 이미지 형성의 기초 연구[17], Kim and Park(2013)의 미디어를 통한 남성 메이크업의 현대 사회문화적 가치를 고찰하는 연구[18], Seo(2006)의 의복스타일과 화장태도에 따른 색조 화장품 선호색을 연구한 논문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되는 추세이다[19].

이렇듯 외모와 화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화장태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여성의 체중과 신체적 외모를 적용한 자아 이미지에 따른 여성들의 화장태도에 대한 연구는 메이크업에 긍정적인 부분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용한 자료제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체노화가 시작 되는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신체적 이미지, 자아 이미지 그리고 따른 화장태도는 어떠한지, 이러한 신체이미지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30-40대 여성들의 화장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밝힘으로서 여성들의 화장문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 메이크업 분야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초적이고 보다 다양한 정보와 화장태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체중관심도, 외모관심도 그리고 신체매력도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체중관심도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와 이들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외모관심도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와 이들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신체매력도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와 이들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파악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외모와 체중관심도 및 신체매력도

오늘날 여성들의 외모개선에 대한 경향은 21세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루키즘(Lookism), 즉, 외모지상주의적 사고방식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날씬한

체형을 이상형으로 추구하는 여성들이 증가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이미지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Song and Kim(2005)은 신체이미지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이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다고 한다[20].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총체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자기이미지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와 관련된 신체이미지이다. 신체만족도에 있어 개인의 자아존중, 자기개념, 자기이미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더욱 만족 할 때 자신을 존중하고, 신체에 만족하지 못 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을 비하한다고 한다[9]. 최근에는 식생활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여성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짐에 따라 삶의 양적 팽창을 가져 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만 등 각종 성인병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체형에 관심이 높으며, 비만의 위험도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많다. 또한 체중조절에 대한 기대, 대중매체의 영향, 날씬함에 대한 강박관념이 지나쳐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많다. 여성들은 자신을 실제보다 더 과체중으로 인식하여 체중조절 행위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21].

외모가 하나의 자선이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나이든 여성들도 외모를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쇠퇴해지는 신체적 기능과 아름다움의 상실은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외모의 개선이 중년여성의 생활에 활력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유지·복원 시킬 수 있다면 중년여성의 외모관리는 권장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 Kim et al.(2012)의 중년여성의 신체이미지와 피부건강관리 태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신체이미지와 피부건강관리 태도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22].

Ko and Chung(1992)은 신체적 매력이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으로 타인 혹은 타인의 상정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개인의 경향성 혹은 성향이며, 한 사회에서 이상화된 기준에 맞는 외모가 갖는 특성으로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인지되

는 개념이라고 하였다[23]. 이는 한 사람의 외관적 특성과 보는 사람의 기대가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 개인의 신체적 매력은 타인에 의해 사회적 평가의 기초로써 사용되는 사회적 단서이며, 신체는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적 자산으로서 인식되며 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는 자신감과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매개체로서 개인적인 만족 혹은 사회적인 성공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그 외에도 Kim and Kahng(1992), Jeon and Chung(2010), Kim and Cho(2010), 등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은 자기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상적인 외모를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함에 따라 신체이미지는 자아이미지와 화장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0,24].

이에 대한 측정도구로는 Cash(1990)가 개발한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은 외모변형에 대한 태도 16문항, 체형변형에 대한 태도 14문항, 체중변형에 대한 태도 21문항, 건강 및 외모에 대한 관심 35문항, 자아개념 12문항 그리고 신체만족도 9문항 등 총 10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3].

2.2 자아이미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신체적 특징을 지녔으며, 특성, 습관, 가치관, 유능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혹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자아개념(self-concept) 혹은 자아 이미지(self-image)이다. 특히, Sirgy(1982)는 자아이미지를 실제 자아이미지(actual self-image), 이상적 자아이미지(ideal Self-image)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주로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아개념의 동기(self-concept motives)와 관련이 있다[25].

실제적 자아란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의미하는 반면 이상적 자아란 앞으로 희망하는 자아의 모습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아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이며, 이상적 사회적 자아란 다른 사람들이 비춰지기를 희망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의미한다[26].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이론에 따르면 자아(self)를 에고(ego)라고 표현 하였다. 이러한 에고는 이드(id)에서 시작한 것으로 개체가 출생하여 외부와 접촉하기 시

작하면서 나타난 자아를 지각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외부세계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변화된 본능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27]. Hwang(2007)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 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내면화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식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내면화와 인식 모두는 개인의 신체매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신체매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신체매력과 사회적 신체매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5]. 이는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임으로써 자아만족을 얻기 위해 바람직한 인상을 창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화장태도

현대사회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색조화장이 토탈패션(total fashion)의 하나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화장이 개성적인 자아상의 표현이나 개인적인 생활양식을 상징하는 욕구 충족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자신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며, 화장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평가를 높일 수 있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Kim(1995)은 여성을 화장행동에 따라 대인관계 중시형, 최소화장주장형, 자기만족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대인관계 중시형은 화장을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하며, 자기 만족형은 화장효과를 높이는데, 스킨 케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28].

Lee(2002)는 화장과 신체적 매력에 대한 연구에서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익과 호감을 얻는다는 사실과, 신체적 매력이 삶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장을 하는 것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16].

Baek and Kim(2004)은 화장행동과 영향 변인 연구에서 90년대 들어 여성들의 고학력화, 개인의 가치관 및 생

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는 멀티미디어, 고령화 사회 등이 영향 받는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외모와 주변 환경들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29].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얼굴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감추기 위하여 화장을 하며, 얼굴에 만족하고 있더라도 남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또는 더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화장을 한다고 추정함으로써, 외모관리 요소로서의 화장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5]. Seo(2006)는 여성들은 화장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에 유행추구, 타인지향, 자기만족, 변화추구 등의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화장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나 단순히 미적인 부분만 아니라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자기만의 이미지 표현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9].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중년여성을 정의하는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논문에서 연령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Thompson(1980)은 중년기를 구분하는데 있어 35-50세로 구분하였고[30], Woods and Mitchell(1996)과 Yoon(1985)은 중년기를 35-55세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중년 여성을 30-49세 사이로 하였다[31,40].

이에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미만 여성 218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2년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이었다. 설문지는 30세 이상 50세 미만 여성 20명을 임의 선정, 사전 조사하여 설문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확정하였다. 연구 참여대상자에게는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 않겠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시켰다.

3.2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3.2.1 신체이미지

이 측정도구는 Lee and Song(2009)의 '태도적 신체이

미지, 성형태도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였다[32]. 세부항목은 체중관심 4문항, 외모관심 4문항 그리고 신체매력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항목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등간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고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체중관심 .837, 외모관심 .661 그리고 신체매력 .628이었다. 집단의 구분은 집단의 분포를 고려하여 5점 만점에 2.33점 이하는 낮은 집단, 2.34-3.33점은 보통 집단 그리고 3.34점 이상은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2.2 자아이미지

이 측정도구는 Jiang(2011)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개성과 자아이미지 일치성, 원산지 이미지, 그리고 광고모델이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였다[26]. 세부항목은 세련된 이미지 7문항, 순수한 이미지 5문항 그리고 활동적 이미지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항목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등간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고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세련된 이미지 .855, 순수한 이미지 .747 그리고 활동적 이미지 .710이었다. 집단의 구분은 집단의 분포를 고려하여 집단은 높은 집단은 5점 만점에 3점이상, 낮은 집단은 2.99점 이하로 구분하였다.

3.2.3 화장태도

이 측정도구는 Seo(2005)의 '의복스타일과 화장 태도에 따른 색조 화장품 선호색 연구 의복스타일과 화장 태도에 따른 색조 화장품 선호색 연구'를 참고하였다[33]. 항목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등간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고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918이었다.

3.3 자료분석 방법

조사 수집된 설문지는 활용하기에 부실한 자료는 폐기처분하였으며, 조사대상자 218명의 자료를 코딩하여

SPSS 18.0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하였다.

분석방법은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외에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는 일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체중관심도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4.1.1 체중관심도와 세련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체중관심도와 세련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를 일변량 분석을 한 결과 모형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1>.

<Table 1> An attitude of make-up according to the Weight interests and sophisticated image

| Weight interests | Sophisticated image | M | S.D | N | |
|---------------------------------------|-------------------------|------|-------------|--------|---------|
| low group | low group | 2.42 | .82 | 21 | |
| | high group | 2.88 | .56 | 35 | |
| middle group | low group | 2.48 | .60 | 26 | |
| | high group | 3.11 | .51 | 66 | |
| high group | low group | 2.56 | .57 | 13 | |
| | high group | 3.11 | .67 | 57 | |
| Total | low group | 2.48 | .67 | 60 | |
| | high group | 3.06 | .59 | 158 | |
| classification | III type sum of squares | df | mean square | F | P-value |
| adjusted model | 16.206 | 5 | 3.241 | 8.530 | .000 |
| Weight interests | .965 | 2 | .482 | 1.270 | .283 |
| Sophisticated image | 11.834 | 1 | 11.834 | 31.145 | .000 |
| Weight interests* Sophisticated image | .235 | 2 | .118 | .310 | .734 |
| Error | 80.553 | 212 | .380 | | |
| Total | 1934.661 | 218 | | | |

* $p < .05$

체중관심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42점, 체중관심도가 보통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48점 그리고 체중관심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5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체중관심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88점, 체중관심도가 보통 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11점 그리고 체중관심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0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한 체중관심도에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해보면, 체중관심도가 높은 집단, 보통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 전 영역에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2.88, 3.11, 3.11)이 낮은 집단(2.42, 2.48, 2.56)보다 화장태도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체중관심도와 화장태도와의 관련성은 없었으며, 세련된 이미지와 화장태도와의 관련성은 있었다. 그리고 체중관심도와 세련된 이미지가 화장태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4.1.2 체중관심도와 순수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체중관심도와 순수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를 일변량 분석을 한 결과 모형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2>.

<Table 2> An attitude of make-up according to the Weight interests and image of pure

| Weight interests | Image of pure | M | S.D | N | |
|---------------------------------|-------------------------|------|-------------|-------|---------|
| low group | low group | 2.40 | .67 | 18 | |
| | high group | 2.85 | .67 | 38 | |
| middle group | low group | 2.72 | .75 | 19 | |
| | high group | 2.99 | .55 | 73 | |
| high group | low group | 2.81 | .46 | 14 | |
| | high group | 3.05 | .72 | 56 | |
| Total | low group | 2.64 | .66 | 51 | |
| | high group | 2.98 | .64 | 167 | |
| classification | III type sum of squares | df | mean square | F | P-value |
| adjusted model | 7.101 | 5 | 1.420 | 3.358 | .006 |
| Weight interests | 2.424 | 2 | 1.212 | 2.866 | .059 |
| Image of pure | 3.821 | 1 | 3.821 | 9.035 | .003 |
| Weight interests* Image of pure | .308 | 2 | .154 | .365 | .695 |
| Error | 89.658 | 212 | .423 | | |
| Total | 1934.661 | 218 | | | |

* $p < .05$

체중관심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40점, 체중관심도가 보통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72점 그리고 체중관심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8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체중관심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85점, 체중관심도가 보통 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99점 그리고 체중관심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0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한 체중관심도에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해보면, 체중관심도가 높은 집단, 보통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 전 영역에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체중관심도에 따른 화장태도와의 차이는 없었으나, 순수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와의 차이는 있었다. 그리고 체중관심도와 순수한 이미지가 화장태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4.1.3 체중관심도와 세련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체중관심도와 활동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를 일변량 분석을 한 결과 모형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Table 3>.

<Table 3> An attitude of make-up according to the Weight interests and image of activities

| Weight interests | Image of activities | M | S.D | N | |
|---------------------------------------|-------------------------|------|-------------|--------|---------|
| low group | low group | 2.22 | .63 | 15 | |
| | high group | 2.89 | .64 | 41 | |
| middle group | low group | 2.80 | .57 | 25 | |
| | high group | 2.98 | .61 | 67 | |
| high group | low group | 2.59 | .28 | 9 | |
| | high group | 3.07 | .71 | 61 | |
| Total | low group | 2.59 | .60 | 49 | |
| | high group | 2.99 | .65 | 169 | |
| classification | III type sum of squares | df | mean square | F | P-value |
| adjusted model | 10.200 | 5 | 2.040 | 4.996 | .000 |
| Weight interests | 3.227 | 2 | 1.638 | 4.013 | .019 |
| Image of activities | 6.389 | 1 | 6.389 | 15.647 | .000 |
| Weight interests* Image of activities | 1.699 | 2 | .849 | 2.080 | .127 |
| Error | 86.559 | 212 | .408 | | |
| Total | 1934.661 | 218 | | | |

*p < .05

체중관심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22점, 체중관심도가 보통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80점 그리고 체중관심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5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체중관심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89점, 체중관심도가 보통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98점 그리고 체중관심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0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체중관심도에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해보면, 체중관심도가 높은 집단, 보통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 전 영역에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이는 자신의 체중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되면 남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이미지가 높을수록 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체중과 화장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만족도가 부정적인 집단보다는 긍정적인 집단에서 화장행동에 대해 다양한 욕구를 나타낸다고 한 Choi and Kang(2006)의 연구결과와[34], Ku(2012)의 여고생의 화장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긍정적 자아 관과 활동적 이미지에 따라 화장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와 유사한 조사결과를 보였으며[35], Jeon(2003)의 실버여성의 화장태도 및 화장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실버여성들은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면서 과거보다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36]. 즉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체중관심도와 활동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는 차이가 있으며, 활동 이미지가 높을수록 화장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 외모관심도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4.2.1 외모관심도와 세련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외모관심도와 세련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를 일변량 분석을 한 결과 모형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4>.

<Table 4> An attitude of make-up according to sophisticated image based on appearance's interests

| Appearance's interests | Sophisticated image | M | S.D | N | |
|---------------------------------------------|-------------------------|------|-------------|--------|---------|
| low group | low group | 2.06 | .48 | 23 | |
| | high group | 2.45 | .47 | 20 | |
| middle group | low group | 2.69 | .64 | 34 | |
| | high group | 3.00 | .42 | 104 | |
| high group | low group | 3.32 | .23 | 3 | |
| | high group | 3.58 | .67 | 34 | |
| Total | low group | 2.48 | .67 | 60 | |
| | high group | 3.06 | .59 | 158 | |
| classification | III type sum of squares | df | mean square | F | P-value |
| adjusted model | 39.466 | 5 | 7.893 | 29.207 | .000 |
| Appearance's interests | 16.910 | 2 | 8.455 | 31.287 | .000 |
| Sophisticated image | 1.899 | 1 | 1.899 | 6.989 | .000 |
| Appearance's interests* Sophisticated image | .060 | 2 | .030 | .111 | .895 |
| Error | 57.293 | 212 | .270 | | |
| Total | 1934.661 | 218 | | | |

*p < .05

외모관심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06점, 외모관심도가 보통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69점 그리고 외모관심도가 높은 집단 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3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외모관심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45점, 외모관심도가 보통집단 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00점 그리고 외모관심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5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외모관심도에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해보면, 외모관심도가 높은 집단, 보통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 전 영역에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화장태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즉, 외모관심도에 따른 화장태도는 차이가 있었으며,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가 높았다. 즉, 외모관심도와 세련된 이미지에 따라 화장태도의 차이는 있었다. 그리고 외모관심도와 세

련된 이미지가 화장태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4.2.2 외모관심도와 순수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외모관심도와 순수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를 일변량 분석을 한 결과 모형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5>.

<Table 5> An attitude of make-up according to sophisticated image based on image of pure

| Appearance's interests | Image of pure | M | S.D | N | |
|---------------------------------------|-------------------------|------|-------------|--------|---------|
| low group | low group | 2.12 | .34 | 15 | |
| | high group | 2.30 | .58 | 28 | |
| middle group | low group | 2.68 | .54 | 28 | |
| | high group | 2.99 | .47 | 110 | |
| high group | low group | 3.43 | .70 | 8 | |
| | high group | 3.60 | .64 | 29 | |
| Total | low group | 2.64 | .66 | 51 | |
| | high group | 2.98 | .64 | 167 | |
| classification | III type sum of squares | df | mean square | F | P-value |
| adjusted model | 37.680 | 5 | 7.536 | 27.043 | .000 |
| Appearance's interests | 26.432 | 2 | 13.216 | 47.425 | .000 |
| Image of pure | 1.398 | 1 | 1.398 | 5.018 | .026 |
| Appearance's interests* Image of pure | .151 | 2 | .076 | .272 | .762 |
| Error | 59.079 | 212 | .279 | | |
| Total | 1934.661 | 218 | | | |

*p < .05

외모관심도가 낮은 집단 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12점, 외모관심도가 보통집단 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68점 그리고 외모관심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4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외모관심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30점, 외모관심도가 보통집단 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99점 그리고 외모관심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6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외모관심도에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해보면, 외모관심도가 높은

집단, 보통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 전 영역에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즉, 외모관심도에 따른 화장태도는 차이가 있었으며,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가 높았다. 외모관심도와 순수한 이미지에 따라 화장태도의 차이는 있었다. 그리고 외모관심도와 순수한 이미지가 화장태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4.2.3 외모관심도와 활동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외모관심도와 활동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를 일변량 분석을 한 결과 모형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6>.

<Table 6> An attitude of make-up according to sophisticated image based on image of activities

| Appearance's interests | Image of activities | M | S.D | N | |
|---------------------------------------------|-------------------------|------|-------------|--------|---------|
| low group | low group | 2.23 | .43 | 18 | |
| | high group | 2.25 | .57 | 25 | |
| middle group | low group | 2.73 | .60 | 26 | |
| | high group | 2.97 | .47 | 112 | |
| high group | low group | 3.10 | .44 | 5 | |
| | high group | 3.63 | .65 | 32 | |
| Total | low group | 2.59 | .60 | 49 | |
| | high group | 2.99 | .65 | 169 | |
| classification | III type sum of squares | df | mean square | F | P-value |
| adjusted model | 37.551 | 5 | 7.510 | 26.891 | .000 |
| Appearance's interests | 18.449 | 2 | 9.224 | 33.028 | .000 |
| Image of activities | 1.649 | 1 | 1.649 | 5.905 | .016 |
| Appearance's interests* Image of activities | .861 | 2 | .430 | 1.541 | .217 |
| Error | 59.208 | 212 | .279 | | |
| Total | 1934.661 | 218 | | | |

*p < .05

외모관심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23점, 외모관심도가 보통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73점 그리고 외모관심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1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외모관심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25점, 외모관심도가 보통 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97점 그리고 외모관심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6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외모관심도에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해보면, 외모관심도가 높은 집단, 보통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 전 영역에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외모관심도의 경우 화장태도에 유의하였으며,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가 높았다. 즉, 외모관심도와 활동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는 있었다. 그리고 외모관심도와 활동 이미지가 화장태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이는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이상적인 외모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그에 따라 화장에 대한 욕구 수준 또한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는 Choi(2010)은 의복 추구이미지는 화장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7]. Kwon(2001)은 화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기표현 욕구가 강하고 활동 성향이 크다고 하였다[38]. Kim et al.(2012)은 신체이미지중 외모지향성이 피부건강관리태도와 관련성(r=0.453)이 크다고 하였다[22]. Ku(2012)의 연구에서도 외모 관심도에 따라 화장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5]. 그리고 Kim and Park(2007)의 자기에 성향에 따른 집단별 미용추구혜택이 미용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화장행동이 연출만족자신감, 자기가치 상승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타일 연출을 통해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고, 외모를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 할수록 화장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39]. 그 외에도 Jeon and Chung(2010)은 외모에 대한 관심은 젊은 여성들 못지않게 중년 여성들도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인 향상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외모 향상을 위해 화장, 헤어스타일등 외모관리의 중요성이 더해간다고 밝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10]. 따라서 활동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화장태도에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4.3 신체매력도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4.3.1 신체매력도와 세련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신체매력도와 세련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를 일변량 분석을 한 결과 모형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7>.

<Table 7> An attitude of make-up according to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ophisticated image

| Physical attractiveness | Sophisticated image | M | S.D | N | |
|----------------------------------------------|-------------------------|------|-------------|--------|---------|
| low group | low group | 2.36 | .51 | 25 | |
| | high group | 2.61 | .43 | 15 | |
| middle group | low group | 2.65 | .70 | 30 | |
| | high group | 2.97 | .49 | 90 | |
| high group | low group | 2.04 | .98 | 5 | |
| | high group | 3.33 | .67 | 53 | |
| Total | low group | 2.48 | .67 | 60 | |
| | high group | 3.06 | .59 | 158 | |
| classification | III type sum of squares | df | mean square | F | P-value |
| adjusted model | 24.527 | 5 | 4.905 | 14.398 | .000 |
| Physical attractiveness | 2.762 | 2 | 1.381 | 4.053 | .019 |
| Sophisticated image | 9.439 | 1 | 9.439 | 27.705 | .000 |
| Physical attractiveness* Sophisticated image | 4.015 | 2 | 2.008 | 5.892 | .003 |
| Error | 72.232 | 212 | .341 | | |
| Total | 1934.661 | 218 | | | |

*p < .05

신체매력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36점, 신체매력도가 보통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65점 그리고 신체매력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0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신체매력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61점, 신체매력도가 보통 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97점 그리고 신체매력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3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신체매력도에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해보면, 신체매력도

가 높은 집단, 보통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 전 영역에서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외모관심도의 경우 화장태도에 유의하였으며,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가 높았다. 즉, 신체매력도와 세련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는 있었다. 그리고 신체매력도와 세련된 이미지가 화장태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4.3.2 신체매력도와 순수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신체매력도와 순수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를 일변량 분석을 한 결과 모형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8>.

<Table 8> An attitude of make-up according to Physical attractiveness and image of pure

| Physical attractiveness | Image of pure | M | S.D | N | |
|----------------------------------------|-------------------------|------|-------------|--------|---------|
| low group | low group | 2.32 | .42 | 19 | |
| | high group | 2.58 | .53 | 21 | |
| middle group | low group | 2.70 | .67 | 25 | |
| | high group | 2.94 | .52 | 95 | |
| high group | low group | 3.25 | .77 | 7 | |
| | high group | 3.22 | .79 | 51 | |
| Total | low group | 2.64 | .66 | 51 | |
| | high group | 2.98 | .64 | 167 | |
| classification | III type sum of squares | df | mean square | F | P-value |
| adjusted model | 15.702 | 5 | 3.140 | 8.213 | .000 |
| Physical attractiveness | 9.518 | 2 | 4.759 | 12.447 | .000 |
| Image of pure | .698 | 1 | .698 | 1.824 | .178 |
| Physical attractiveness* Image of pure | .370 | 2 | .185 | .483 | .617 |
| Error | 81.057 | 212 | .382 | | |
| Total | 1934.661 | 218 | | | |

*p < .05

신체매력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32점, 신체매력도가 보통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70점 그리고 신체매력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2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매력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

은 화장태도가 2.58점, 신체매력도가 보통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94점 그리고 신체매력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2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화장태도에 대해 동일한 신체매력도에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즉, 신체매력도에 따른 화장태도와의 차이는 있었으나 순수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신체매력도와 순수한 이미지가 화장태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4.3.3 신체매력도와 활동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신체매력도와 활동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를 일변량 분석을 한 결과 모형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9>.

<Table 9> An attitude of make-up according to Physical attractiveness based on image of activities

| Physical attractiveness | Image of activities | M | S.D | N | |
|----------------------------------------------|-------------------------|------|-------------|-------|---------|
| low group | low group | 2.16 | .43 | 12 | |
| | high group | 2.58 | .47 | 28 | |
| middle group | low group | 2.71 | .61 | 33 | |
| | high group | 2.96 | .53 | 87 | |
| high group | low group | 2.87 | .29 | 4 | |
| | high group | 3.25 | .80 | 54 | |
| Total | low group | 2.59 | .60 | 49 | |
| | high group | 2.99 | .65 | 169 | |
| classification | III type sum of squares | df | mean square | F | P-value |
| adjusted model | 17.523 | 5 | 3.505 | 9.377 | .000 |
| Physical attractiveness | 6.891 | 2 | 3.455 | 9.218 | .000 |
| Image of activities | 2.596 | 1 | 2.596 | 6.946 | .009 |
| Physical attractiveness* Image of activities | .199 | 2 | .099 | .266 | .767 |
| Error | 79.236 | 212 | .374 | | |
| Total | 1934.661 | 218 | | | |

*p < .05

신체매력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16점, 신체매력도가 보통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71점 그리고

신체매력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낮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8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신체매력도가 낮은 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58점, 신체매력도가 보통 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2.96점 그리고 신체매력도가 높은 집단이면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은 화장태도가 3.2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신체매력도에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해보면, 신체매력도가 높은 집단, 보통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 전 영역에서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즉, 신체매력도가 높고 활동 이미지가 높을수록 화장태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화장태도에 대해 신체매력도와 활동 이미지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이는 신체적 매력과 활동이미지가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 자신에 대한 화장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Jeon and Chung(2010)의 연구에서 신체 관련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여성들이 화장이나 성형 등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10]. Kim and Cho(2010)는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신체에 대한 감시가 높고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매체 압력이 클수록 여학생들이 미용관리를 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24]. Seo(2012)는 신체의식 전체와 '적극적심리 변화'는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신체 자신감', 신체관리노력'은 '외모상승의 즐거움'과, '신체불만족'은 '자신감 향상'의 도구로서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아짐을 알 수 있어 신체의식이 뚜렷하면 높은 화장의 심리적 효용을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14]. 이러한 결과로 신체매력도와 활동이미지에 따라서 화장태도에 대한 차이는 신체매력도가 높을수록 화장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동일한 신체매력도 내에서도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30-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체중관심도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중관심도와 세련된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는 세련된 이미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여성들의 화장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체중관심도와 순수한 이미지에 따른 차이는 체중관심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체중관심도와 활동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는 체중관심도가 높을수록 화장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활동이미지도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체중관심도의 경우 세련된 이미지와 순수한 이미지에 따라 화장태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활동 이미지에서는 체중관심도에 따라 화장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둘째, 외모관심도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화장태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외모관심도가 높고,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화장태도에 대해 긍정적이며, 활동 이미지에 대한 차이에서도 활동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에 더 적극적이었다. 즉,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이미지가 높을수록 화장태도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신체매력도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매력도의 경우 신체매력도가 높을수록 화장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동일한 신체매력도내에서도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가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신체매력도와 세련된 이미지 간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다. 신체매력도와 순수한 이미지에 따른 차이에서도 신체매력도가 높을수록 화장태도가 긍정적이었으나, 동일한 신체매력도 내에서 순수한 이미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서 화장태도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신체매력도와 활동이미지에 따라서 화장태도에 대한 차이는 신체매력도가 높을수록 화장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동일한 신체매력도 내에서도 활동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화장태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 요인

은 세련된 이미지와 외모관심도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 여성들의 체중관심도와 자아이미지, 외모관심도와 자아이미지, 신체매력도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밝힘으로써 여성들의 화장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외모관련 산업은 앞으로 다른 관련 분야들의 상호보완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서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획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위와 같은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앞으로 좀 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수정된 척도와 더욱 많은 표본수를 통해 연령대별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과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전반적인 인식의 차별화에 기초를 두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2. 본 연구는 30대와 40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인들을 찾아 그들의 관계성과 영향성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2012RIAIA/2041477)

REFERENCES

- [1] Y. J. Kim and H. W. Kahng, The Effect of Clothing Satisfaction, Body Cathexis, and School Achievement Related to Social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16, No. 2, pp. 197-209, 1992.
- [2] H. J. Jeon and M. S. Chung, Research Paper : The

- Influence of a Physical-Related Stress and Appearance Concern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Beauty Society*, Vol. 16, No. 2, pp. 466-474, 2010.
- [3] T. F. Cash,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appendix,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NY: Pergamon press, 1990.
- [4] S.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 [5] Y. J. Hwang,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elf-Esteem, and Physical Attractiveness Perceptiveness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07.
- [6] B. I. Kim, An Attitude and Practical Behavior for Middle-Aged Women's Skin Health Care. *Journal of Korean Beauty Society*, Vol. 5, No. 1, pp. 123-166, 1999.
- [7] E. Berscheid and E. Walster, Physical Attractivenes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7, pp. 157-215, 1974.
- [8] D. L. Cusumano and J. K. Thompson, Body image and body shape ideals 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Vol. 37, No. 9, pp. 701-721, 1997.
- [9] J. S. Hwang and Y. H. Kim, The Effect of Appearance Management on Body Im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56, No. 3, pp. 143-155, 2006.
- [10] H. J. Jeon and M. S. Chung, Research Paper : The Influence of a Physical-Related Stress and Appearance Concern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Beauty Society*, Vol. 16, No. 2, pp. 466-474, 2010.
- [11] H. J. Kim, Appearance-Management: Narcissistic personality tendency and Bod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4.
- [12] K. B. Lim, A Study on Attitudinal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Body Cathex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Vol. 10, No. 6, pp. 882-889, 2008.
- [13] B. R. Schlenker, *Impression Management :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Belmont: Brooks Cole, 1980.
- [14] E. H. Seo, A Study on Relationship of Narcissistic Trait, Body Consciousne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Psychological Utility in Make-up. Ph.D.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2.
- [15] M. S. Chung, The Effect of Make-up attitude, Self-esteem, and Body satisfaction on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 19, No. 1, pp. 35-45, 2007.
- [16] H. S. Lee, A Study on Makeup Image and Self-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Level of Expected Socio-Psychological Effect of Makeup. Ph.D.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2002.
- [17] H. K. Kim,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Male's Make-up.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0, No. 11, pp. 635-640, 2012.
- [18] H. K. Kim and M. H. Park, The Sociocultural Value Research of Man Image and Make-up in Media.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4, pp. 449-457, 2013.
- [19] R. S. Seo, Research about Preferable Color of Colored Cosmetic According to Makeup Attitude. *Journal of Korean Beauty Society*, Vol. 12, No. 3, pp. 28-38, 2006.
- [20] K. J. Song and J. S. Kim, The Effects of Body-image Measured by Multi Measurements on Body Modification, Self Concept, and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29, No. 3, pp. 391-402, 2005.
- [21] Y. S. Jeun and M. S. Jeun, Research Paper: The Study on Weight-Related Attitudes and Behaviors of Women, *Journal of Korean Beauty Society*, Vol.

- 13, No. 3, pp. 1293-1304, 2007.
- [22] S. K. Kim, H. J. Mun and K. S. Park, A study of the Intention of Middle-Aged Women's body image and the Attitude of Skin Health Care.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Vol. 15, No. 3, pp. 21-28, 2012.
- [23] S. J. Ko and J. K. Chung, Beauty and Oppression: The Impacts of cultural myth on Women.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Vol. 8, No. 0, pp. 33-70, 1992.
- [24] Y. Kim and K. M. Cho, Research Paper : A Study on The Effect Factors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Cosmetic Management Intention and Weight Management Intention. *Journal of Korean Beauty Society*, Vol. 16, No. 1, pp. 244-253, 2010.
- [25] M. J. Sirgy, Self-Concept in Consumer Behavior: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9, pp. 287-300, 1982.
- [26] Y. Jiang, The Influence of the Congruence between Brand Personality and Self-image, Country of Origin, Advertising Models of Korean Cosmetics on Brand Attitude and Brand Loyalty-Focused on Chines Women in 20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1.
- [27] S. H. Oh, A Q-methodological study on the intra-structure of self-concept of some middle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1992.
- [28] B. I. Kim, Objective Research for subjectivity of Make-up Attitude. *Journal of Korean Beauty Society*, Vol. 1, No. 1, pp. 19-36, 1995.
- [29] K. J. Baek and M. Y. Kim, Make-Up Behavior and Influential Factors - Focusing on Clothing Involvement, Age and Fac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28, No. 7, pp. 892-903. 2004.
- [30] M. J. Thompson, Identity attainment in midlife females: An assessment scal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80.
- [31] N. F. Woods and E. S. Mitchell, Patterns of depressed mood in midlife women: observations from the Seattle Midlife Women's Health Study.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 19, No. 2, pp. 111-123. 1996.
- [32] M. S. Lee and K. J. Song, The Effects of Attitudinal Body Image and Plastic Surgery Attitude on Cloth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8, No. 2, pp. 441-449, 2009.
- [33] R. S. Seo, Research about Preferable Color of Colored cosmetic According to Clothing Style and Makeup Attitude. Ph.D.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 2005.
- [34] S. K., Choi and K. J. Kang, A Study of Maslow Need and Make-up Behavior of Women by Body Cathexis and Make-up Attitud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Vol. 14, No. 3, pp. 497-513, 2006.
- [35] M. J. Ku,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of High-school Girl Students' Make-up Behavio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2.
- [36] J. S. Jeon, A Study on the Attitude and Behavior of Silver Generation Women toward Makeup and Cosmetic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3.
- [37] S. K. Choi, Research reports : The Accessory Wearing and Make-up Degree According to Pursued-Image of Clothes and Hair-sty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 16, No. 1, pp. 335-344. 2010.
- [38] H. S. Kwon, A study on Mental Satisfaction with Women's Face Make-up in view of Health Promotion Concept. master's thesis, Kyungsan University. 2001.
- [39] Y. S. Kim and O. L. Park, Research Paper : Impact of the Benefit of Beauty Pursuit on Beauty Care Behavior in Groups with a Different Degree of Narcissism. *Journal of Korean Beauty Society*, Vol. 16, No. 3, pp. 700-709, 2010.
- [40] J. Yoon, *Adult Gerontic Psychology*. Seoul: Joongang Aptitude Books, 1985.

서 란 숙(Ran-Sug, Seo)



- 1985년 2월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미술학사)
- 199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미술학석사)
- 2003년 5월 ~ 2005년 5월: 미스코리아 심사위원
- 2005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이학박사)
- 1997년 3월 ~ 2009년 2월 : 대경대학교 뷰티디자인학부 학부장역임
- 2009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호서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겸직재직
- 2012년 3월 ~ 현재 : 대구한국일보 미스코리아 자문교수
- 관심분야 : 화장심리, 메이크업, 이미지메이킹, 문신, 색채심리
- E-Mail : srs1001@daum.net